

군부독재에 신음하는 버마에 민주적 총선이 치뤄지길 희망합니다



Burman People VS

버마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2010 총선

1. 아웅산수찌 여사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 석방
2. 소수민족과 민주주의 인사에 대한 적대적 행위 중단
3. 군부가 개악한 2008년 헌법 재검토, 국민과의 대화



Military Regime

군부가 추진하려는 2010 총선의 목적

1. 2008년 헌법 유지 - 민주화세력, 활동가, 정치범 배제
2. 소수민족에 대한 군부통제로 인권침해 책임회피
3. 군부통치 영속

이명박 대통령께,

버마는 2010년 총선거를 앞두고, 군부정권의 폭압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도자인 아웅산수찌 여사를
포함해 정치범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고, 소수민족은
탄압받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거는 군부정권이 2008년
개악한 헌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전쟁범죄와 반인륜적
범죄의 책임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버마 국민은 군사정권에
의한 선거가 아닌, 제대로 된 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선거가 되려면 버마 군부는
최소한 다음 요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1. 아웅산수찌 여사 및 모든 정치범 석방할 것
2. 소수민족과 민주화 세력에 대한 적대적 행위 중단할 것
3. 개헌 헌법 재검토하고 주요 당사자들과 대화에 임할 것

이에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요구합니다.

1. 버마 군부가 실시하는 2010 총선거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2. 버마 군부가 위 3가지 민주적 선거 요건을 수용할
것을 요청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국제사회에 천명해 주십시오.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며,

이름 _____ (서명)

주소 _____

받는 사람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1 청와대 대통령실

이명박 대통령 앞

110-820